

김영록 지사 “AI·빅데이터로 전남 미래농업산업 선도”

영광서 4-H 가족 어울림마당…청년농업인 격려
생산 농특산물 역사·전시 등 지역 농업 변천사 선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일 영광스 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 4-H가족 어울림마당'에 참석해 “AI와 빅데이터로 전남 농업을 미래 첨단 생명산업으로 이끌어달라”며 청소년과 청년 4-H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미래세대인 4-H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전인적 성장과 창의적 사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4-H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청년, 지도자 등 4-H회원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계호·신정훈 국회의원의, 김강현 영광군의회의장, 김성일·오미화 전남도의회의원, 송광민 영광부군수,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4-H육성 학교장 등이 함께했다. 식전 공연과 우수회원 표창, 비전 퍼포먼스, 제6회 전남4-H대상 시상식, 회원 화

합한마당 등으로 이어지며 회원 간 소통과 결속을 다졌다.

성과공유 부스에서는 청년4-H회원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과 4-H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물이 공개돼 지역 농업의 변화상을 보여줬다.

문화진 한국4-H전남본부 회장은 “전남4-H운동은 학교4-H, 청년4-H, 후원지도자가 함께하는 인력육성 조직으로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는 이념 아래 전남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4-H운동은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창출하는 청소년·청년 교육운동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으로 전남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전남 4-H가족 어울림마당'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현재 7500여명의 4-H회원이

농촌 현장을 지키며 미래농업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4-H회원들은 스마트팜과 ICT기술을 활용한 농업혁신의 주체로 자리 잡고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청렴·품질·안전’ 3대 경영 강화 다짐

‘청렴을 품안앰’ 세미나 개최

건설현장 무재해·무결점 목표

전남개발공사가 청렴과 품질, 안전을 핵심 가치로 한 지속가능경영 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최근 임직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을 품안앰’을 주제로 2025년 ‘청렴·품질·안전경영 세미나’를 열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강연과 함께 △건설현 이해관계 형성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건설기술인 품질역량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행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토론을 통해 청렴·품질·안전 실천방안을 모색하며 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임직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을 품안앰’을 주제로 2025년 청렴·품질·안전경영 세미나를 열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어오며 종합청렴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점검단 운영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0건’을 유지하는 등 공공기관 중 모

범적인 성과를 거뒀다.

장충모 사장은 “청렴과 품질, 안전은 우리 공사의 신뢰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임직원 모두가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품질·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혹한기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품질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해 무결점·무재해 사업장 유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김현·이어진씨 우수 기관사 선정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 서비스 최선”

광주교통공사(사장 조익문)는 올해 최고의 운전 역량을 바탕으로 승객 안전 확보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승무원 김현 과장과 이어진 대리를 우수 기관사로 선정했다.

김현 과장(49)은 지난 2003년 공채 1기로 입사 후 지금까지 총 44만km 무사고 운행을 달성한 모범 기관사로, 이번 평가에서는 평소 이례 상황 발생 시 뛰어난 조치 대응과 응급 조치 능력을 선보였던 점을 크게 인정 받았다.

김현 기관사는 “평소 지침서를 바탕으로 늘 가장 훈련을 하며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발이 되어 열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한 명의 우수 기관사 이어진 대리(27) 역시 2023년 입사 후 무사고 운전 약 4만km를 기록 중이다.

이 기관사는 “아직 경력은 짧지만 선배들로부터 배운 노하우를 꾸준히 훈련했던 게 대회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멋진 기관사가 되



광주교통공사는 올해 최고의 운전 역량을 바탕으로 승객 안전 확보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승무원 김현 과장(사진 아래)과 이어진 대리를 우수 기관사로 선정했다.

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04년 개통 후 매년 이론 및 기술 실기, 비상 대응 능력, 운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사를 선발해 승무 직원의 역량 강화와 교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시민이 만든 AI가 상상하는 ACC 미래 모습 공개

문화전당 ‘AI 콘텐츠 공모전’

대상 이은섭·최우수상 강동우씨

인공지능 자동·전문가 심사

총 23개 수상작 최종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8일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5에서 ‘ACC 인공지능(AI)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ACC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9~10월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린다’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상상한 ACC의 미래 모습을 영상과 이미지로 제작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총 79명의 시민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은 1차 심사를 공공기관 최초로 AI가 직접 심사하는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챗GPT 등 AI 툴을 활용한 자동 평가를 통해 50개의 작품을 선별한 뒤, AI·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2차 종합 평가를 거쳐 총 23개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5에서 ‘ACC 인공지능(AI)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은 2025 ACC AI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단체 모습.

이날 AI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ACC, 아시아의 오늘을 세계의 내일로’라는 제목으로 AI 영상 콘텐츠를 출품한 이은섭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상장과 기념품이 증정됐다.

최우수상은 영상 분야에서 강동우씨가 ‘ACC의 새로운 10년’을 주제로 수상했으며, 이미지 분야에서는 김유미씨가 ‘빛으로 피어나는 ACC’로 수상해 각각 상금 100만원과 기념품을 전달받았다.

이외에도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입선

10명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상금과 상품이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ACC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수상작 상영과 함께 수상자들이 작품 제작 과정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23개 작품은 10일부터 ACC 미디어월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대상을 수상한 이은섭씨는 “AI를 통해 상상한 ACC의 미래를 전통과 첨단 기술, 다양한 세대와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져 아

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ACC를 컷 하나 하나에 담아 보았다”면서 “공모전을 준비하며 ACC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다가가 ACC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꿈꾸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AI가 상상한 ACC의 미래를 시민의 창의력으로 완성한 뜻깊은 공모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융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과 제9대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 아동·청소년의회 개회…정책 3건 제안

아동의회, 초등 수학여행안전제도 구축 등 정책 4건 제안

광주시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과 제9대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41명이 참석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교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아동의회 정책선언식에 이어 청소년의회 본회의와 아동의회가 잇따라 열려 5분 자유발언, 정책안전 제안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아동의회는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진다’를 주제로 천문·우주 체험 수업 도임을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아동의원들이 결성한 긴급문제해결단(교육·기후환경·보건복지·산업건설)은 초등학교 수학여행 안전제도 구축, 어린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등 4건의 정책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한 8건의 안건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승기 기자